

예수님의 순복

마태복음 26:30-56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빈이고 윌링던 교회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섬기는 왕"이라는 부활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태복음 26:30-56절까지 펴 두시기 바랍니다.

순복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함과 더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순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분들은 군대가 적에게 둘러싸여 흰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운동선수가 패배를 인정하거나, 어떤 사람이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든, 이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통제력을 포기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굴복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순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의 거절,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결국 친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1. 순복의 고립
2. 순복의 기도
3. 순복의 승리

지난주 레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26장 1-29절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모임
-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
-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기 위한 모임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 읽고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2025년 4월 13일, 우리는 전통적으로 종려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1절에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순복의 고립

예수님께서서는 앞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시고, 만찬을 준비하셨으며, 만찬은 제자들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마도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할렐 시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였을 겁니다. 이 시편들은 유월절과 관련된 시편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 순간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만찬 도중에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과 다락방에서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유다는 나갔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만찬 마지막 식사 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로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가 떠나고, 성만찬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후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나왔고,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감람산은 단순히 산비탈에 있는 감람나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장면의 장소를 감람산으로 했는지 놀랍습니다!

30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지만, 상황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 질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찬송가를 부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구체적으로는 겐세마네라는 곳이고 '기름 짜는 틀'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말 디테일이 놀랍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얻으려면 올리브를 으깨고 쥐어짜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으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예언하십니다. 'all fall away'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스캔들' 또는 '실족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백기를 들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나 몇 달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제 말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동안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꼭 지금이냐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혼자서 겪으셔야 할 고통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랍비 또는 선생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셨기에, 어쩌면 자신들도 결국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늘날과 미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예수님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일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계획이라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홀로 가실 길입니다!",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일리는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그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마음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과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계획이 그 계획보다 더 낫겠다. 고통도 없고 굴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 길은 예수님 혼자 가세요!"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이나, 리더들 또는 권위자들을 볼 때, 숫자나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에 기반해서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이 가진 숫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 따르는 자들은 더 안 좋아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 본다면, 그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이 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혼자 하세요"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겉보기에 강하고 힘이 있으며 부유해 보이는 사람을 따르거나,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계획은 즉흥적으로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55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말씀임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3:7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족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실족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56절에 보면 다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개인적이고, 공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과 맹세를 공개적으로 선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33절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린다고 비난하며 모두를 깎아내리지만, 본인은 스스로를 과시하며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의 열정을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3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탉이 크게 소리 내듯,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거나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즉 31절 한 번과 34절에 두 번째 나오는 예언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를 기회였습니다.

저와 비슷하다면, 캐나다에서 흔히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의 거절, 내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의 거절, 그리고 종교인들이 내 삶과 죽음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그 일에 순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셨고, 그에 순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계속 따를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계셨기에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그 분만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2천년 넘게 전해 온 이야기이며, 앞으로 2000년 동안도 변함없이 전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홀로 계신 가운데 순복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순복의 기도

예수님의 홀로 계심은 36절에서 46절까지에서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면의 힘과 그 힘의 근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십 대 시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버님 고향으로 데려가시고 자랐던 동네에도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아버지가 자란 동네에는 수도물이 없었고 그 말은 화장실은 땅에 구멍을 파서 쓰고 있었던 말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난에 대해 제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 생각엔 직접 보여주고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지금 저는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제 아이들을 위해 했던 작은 희생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때,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버림, 배신,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도착했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서, 그들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덟 제자를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와 "지켜보아라"와 같은 중요한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지켜봐라" 라는 말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또는 그와 비슷한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36, 39, 41, 42, 44절 슬라이드).

30절부터 35절까지 모든 제자들의 허세가 드러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 저희는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위치, 즉 가장 겸손한 위치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이 시간 내내 한가로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39절은 이 순간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41절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잠든 것을 보실 때 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기도 방식이었을까요?

[건강 연구 논문] 바이오메드센터로도 알려진 비엠티 퍼블릭 헬스는 캐나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크린타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지는 않지만, 부족한 신체 활동, 과도한 오락용 화면 사용, 그리고 부족한 수면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신 건강과 집중력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혹은 성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 하는 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큰 어려움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므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과 42절에서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시며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같은 자세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 중 한 순간인데..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도 않으셨고, 더 노력하지도 않으셨으며,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39절과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잔은 이사야 51장과 예레미야 25장에 언급되었듯이, 죄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주시는 잔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순복의 기도로 "아버지,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행하기 전의 준비 기도였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5:7-10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변호자이시며,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순복의 승리

저는 평생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지만, 지난주에 저희 가족은 두 마리 햄스터를 우리 집 햄스터들, 우리 딸들을 위해 샀습니다. 햄스터를 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케이지와 햄스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주기로 했습니다. 애들은 본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애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부모니까요. 햄스터를 사준 것은 애들이 약속해서가 아니라, 제가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햄스터들을 돌볼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그분의 약속이지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림] 이 그림은 1306년 조토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이 그림이 묘사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47-56절에 나오는 장면 같은 혼란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지만, 정작 한가운데에는 혼란이 잠시 멈춘 듯한 모습입니다. 두 명의 중심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문화적으로 우정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을 배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다는 상황을 주도하는 듯합니다. 같이 온 무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입맞춤까지.

권력자들(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를 이끌고 오면서 상황을 장악하는 듯합니다.

베드로(베드로입니다-요한복음 18:10) 또한 상황을 컨트롤하는 듯합니다. 특히 그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53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칠만 이천 명의 천사를 불러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물리적인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나는 예수님께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큰 무리,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즉 옛 정권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새 정권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구절 전체에서 베드로는 승리의 복음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승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승리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제가 주를 위해 죽어야 할지라도"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나친 자만심으로 시작하지만 볼품없이 비참하게 끝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순복으로 시작하시지만 강인함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슬프지만 희망찬 말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로 도망하니라

35절에서 그들이 한 말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 혼자가 되었지만, 베드로와 다른 열 제자들은 예수님께 삶을 바쳤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결국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6절에서도 “버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4:20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들림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에 의지할 무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루어야 합니까? 왜 순종하시나요? 왜 유다의 배신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흩어진 것에 순복하셨나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나요? 왜 모든 고통과 고난에 순종하셨나요?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절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라.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령님!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에 어떻게 소망을 줄까요?
2. 예수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순복과 신뢰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3.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